보 고 자 료

새로운 10년을 선도하는
방송통신 2010 핵심 과제

2009. 12. 21

방송통신위원회
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

차 례

Ⅰ. 방송통신 융합 2년의 성과와 반성 ····· 1

Ⅱ. 방송통신 2010 Agenda ····· 3

Ⅲ. 핵심 과제 ····· 5

1. 방송통신 · 미디어산업 육성 ····· 5

2. 미래 네트워크 세상 선도 ····· 13

3. 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십 확보 ····· 20

Ⅳ. 방송통신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절감 ····· 25

Ⅴ. 2009년 업무보고 추진 실적 ····· 26

Ⅰ. 방송통신 융합 2년의 성과와 반성

□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취지

o **네트워크 > 서비스 > 콘텐츠**로 이어지는 **가치사슬 생태계를 재편**하여 방송통신 융합을 새로운 **미래성장동력**으로 육성

o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**글로벌 경쟁력 확보**를 위해 과거 **아날로그 시대**의 **패러다임**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**낡은 규제틀**을 과감하게 **개선**

□ 지난 2년의 성과와 반성

o **(융합형 서비스 안착)** 방통융합의 대표적 서비스인 IPTV가 '09.12월 현재 163만명의 실시간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하며 시장에 안착

※ VOD 포함 IPTV 가입자 232만명

o **(가계통신비 경감)** 대통령 공약사항인 가계통신비 20% 인하를 위해 과금체계 개선(10초→1초), 가입비 인하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요금 인하 유도

※ '10년 가구당 년 십만원 수준의 요금 경감 기대

o **(낡은 규제 개선)** 방송사업에 대한 각종 소유제한 규제 완화 및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규제 장치 도입

※ 1인지분 제한 30%→40%, 신문·대기업 지상파(10%) 및 종편·보도(30%) 진입 허용

o **(방송통신산업 육성 미흡)** 각종 제도개선 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방송·통신·인터넷·콘텐츠 산업 진흥이 미흡

※ MVNO, 신규채널사업자 등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면서 관련 산업 육성에 차질 발생

o **(사이버안전 대응 미흡)** 7.7 DDoS 사태 발생 등 나날이 진화하는 사이버테러에 비해 정부 및 민간 대응 체계의 취약점 노출

o **(방송통신 제도적 융합 지연)**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, 방송통신기금 통합 등 방송과 통신을 하나로 엮는 제도 통합 미흡

※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국회 계류

<국민이 바라는 방송통신 - 설문조사>

■ **(일반국민)** 방송통신정책중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안들 중에는 방송통신서비스 정책(요금 등)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

구분	서비스정책	사이버안전	방송품격	디지털전환	인터넷윤리
중요도	44%	25%	18%	8%	8%

o 요금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자간 **경쟁활성화**와 함께 **정부역할**을 중시

-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의식함양, 정부대응강화, 민간정보보호기업 육성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변

- 방송품격의 향상을 위해서는 방송사 자정정화, 출연자 자질향상, 정부규제 순으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

<설문조사 개요>
o 주관 : 방통위가 KISDI에 의뢰하여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(11.23~12.4)
o 대상 : 일반국민 1,000명 (설문의뢰 7,085명)
o 내용 : 방송통신정책중 일반 소비자와 직결되는 '방송통신서비스 정책(요금 등)', '사이버안전', '방송품격', '디지털전환', '인터넷윤리' 5개항 설문조사

■ **(전문가)** 방송통신 전문가들은 '10년에는 방통위가 방송통신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을 주문함

- 미디어산업활성화, 무선인터넷활성화, 차세대방송통신산업 육성, 콘텐츠시장활성화 등 **방송통신 진흥 강조**

- 규제 사항으로는 방송통신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

<설문조사 개요>
o 주관 : 방통위가 KISDI에 의뢰하여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(11.23~12.4)
o 대상 : 방송통신 전문가 100명 (설문 의뢰 240명)
o 내용 : 방통위 세부 16개 정책(통신, 방송, 융합, 사이버안전, 공정경쟁, 이용자보호, 디지털전환 등)에 대한 만족도 조사 (3개항 선택)

Ⅱ. 방송통신 2010 어젠다

어젠다 도출 1

지난 2년의 성과와 반성

목 표		성 과		반 성
방송통신 융합	⇒	▪IPTV 정착	⇒	▪통합법 미완
규제 개선	⇒	▪방송 진입제한 완화	⇒	▪실질적 시장 변화 미흡

▶ 2010년은 그간 미흡했던 제도 개선 완료로 미디어산업 선진화 추구

어젠다 도출 2

국민들이 원하는 방송통신 추구

o 방송통신서비스 질 향상(요금 등) o 안전한 인터넷 o 방송통신 품격 등

일반국민

방송통신 전문가

o 차세대 방송통신 융합산업 육성 o 무선인터넷 활성화 등

▶ 2010년은 경쟁활성화 및 차세대 산업 육성 등으로 국가 경제에 활력제고

어젠다 도출 3

G20 의장국으로서의 리더십 발휘

방송통신 ⇒ G20 홍보 | 해외진출 확대 | 개도국 ICT 지원

▶ 2010년에는 흔들리는 방송통신 강국 KOREA 위상을 다시 정립

2010 Agenda

□□ 경쟁력 제고를 통한 방송통신·미디어산업 육성

□□ 망 고도화로 미래 네트워크 세상 선도

□□ 방송통신 KOREA 위상 강화로 글로벌 리더십 확보

◈ 3대 핵심 어젠다

□□ 방송통신 · 미디어산업 육성

o 정책 외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, 각종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여 방송통신분야를 선진화하고 이를 통해 **방송통신 경쟁력을 제고**

⇒ 서비스 경쟁 환경조성, 방송(인터넷)광고 · 콘텐츠 육성, 차세대 방송통신기반 구축, 차세대 방송통신기술 선도 및 녹색융합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방송통신 · 미디어산업 육성

□□ 미래 네트워크 세상 선도

o 차세대 방송통신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**네트워크 고도화**에 앞장서고 민간부문 네트워크 투자 경쟁 유도

⇒ 10배 빠른 초광대역망 구축, 무선인터넷활성화 및 사이버대응 강화 등으로 미래 네트워크를 선도하고 방송통신 경쟁력 지속적 우위 확보

□□ 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십 확보

o 세계 최고수준의 방송통신서비스 · 기술의 효과적 홍보 및 해외시장 진출로 **방송통신 강국 KOREA 위상 강화**

⇒ 해외진출 거점국 확대, G20 및 남아공 월드컵을 통한 홍보 강화, 방송통신 품격 제고 등을 통해 2010 시대 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십 확보

기대 효과

기업	소비자	국가
글로벌 경쟁력 강화	요금·품질 등 혜택 증대	새로운 성장동력 확충

Ⅲ. 핵심 과제

1. 방송통신 · 미디어산업 육성

1-1. 방송·통신 서비스 본격적 경쟁

◆ **[10년 계획] 신규사업자 진입, 서비스 경쟁 강화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으로 관련시장을 활성화하고,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 기반 마련**

□ 신규사업자 시장 진입

o **(방송 채널정책 마련)** 방송법 · 신문법의 개정으로 낡은 규제틀이 개선됨에 따라 신규 사업 등 방송채널 활성화 정책 수립

※ 종합편성, 보도전문, 홈쇼핑 채널 등

o **(MVNO 도입)** 주파수나 네트워크가 없는 사업자도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 도입

※ 재판매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('09.12월)

- 중소통신사업자, 비통신업체 등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조건, 절차, 방법, 대가에 관한 고시 마련('10. 8월)

□ 서비스 경쟁 강화

o **(방송시장 유연성 제고)** 방송사업 (재)허가 · 승인 시 적용하는 심사기준의 세부 심사항목 · 절차 등을 확립하여 행정투명성을 높이고,

- 방송사업 허가 · 승인 취소 시에는 방송연장 수행명령 등의 새로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청자 권리를 최대한 보호

- 또한, 지상파TV 운용시간, 외주제작 편성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방송사업의 자율성 확대

o **(융합·결합서비스 활성화)** FMC, FMS 등 융합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등 고기능 단말기의 보급 확산 유도(연중)

※ FMC(Fixed-Mobile Convergence), FMS(Fixed-Mobile Substitution) : 유·무선 통신 서비스를 하나의 단말기를 통해 이용가능하며 특정 구간에서는 인터넷전화 수준의 요금이 적용되어 요금이 저렴해 짐

- 이동전화, 유선전화 등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4PS 등 결합상품 경쟁 활성화 유도(연중)

※ 4PS(Quadruple Play Service) : 3PS(방송, 인터넷, 인터넷전화) + 이동전화

- 한국 현실에 맞는 요금 비교기준(KOREA INDEX)을 마련('10.9월)하고, 요금인가제를 완화('10.8월)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및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 출시 유도

□ 공정경쟁 환경 조성

o **(경쟁상황 평가)**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여 방송시장의 경쟁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시장 경쟁정책 추진

o **(회계제도 도입)** 회계규정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토록 하는 방송사업 회계제도를 도입('10.12월)하여, 방송 시장 불공정 행위 사전 예방

o **(분쟁조정 확대)** 방송분쟁 조정대상을 방송, IPTV사업자로 확대('10.12월)하고, 장기적으로 방송·통신을 통합하는 분쟁조정제도 마련

o **(도매대가 사전규제)** MNO(망보유 사업자)와 MVNO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도매대가 산정기준 마련('10.8월)

1-2. 방송·인터넷 광고 및 콘텐츠 시장 육성

◆ [10년 계획] 방송광고판매시장 경쟁 도입 및 광고 편성규제 완화와 방송통신콘텐츠 시장구조개선, 지원센터 건립 등 추진

□ 방송광고시장 경쟁도입 및 확대

o **(판매시장 경쟁도입)**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는 방송광고 판매시장을 복수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('10.6월)

- 중소방송사 보호 등 다양성 유지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

- 공사설립 등 방송광고진흥 인프라 구축

o **(방송광고 규제 완화)** 가상·간접광고가 시장에서 정착되어 산업연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편성·운용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('10.6월)

- 사회·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광고 금지 품목을 축소 추진(연중)

□ 인터넷광고시장 활성화

o **(신유형 광고 도입 지원)** 개인 맞춤형 광고, 모바일광고 등 신유형 광고 활성화를 위한 **종합계획 수립** 등 기반 조성('10.6월)

- **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** 마련, 인터넷광고 관련 **기술 개발 및 표준화** 지원 등 추진

o (**소액광고주 보호**) **부정클릭 방지** 등 소액광고주 보호방안 마련을 통해 **건전한 인터넷광고 생태계** 구축(연중)

- 부정클릭 방지를 위한 **신기술 개발** 및 **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추진**

※ 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(제44조의14 내지 제44조의15) 등의 내용을 포함한 「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」(진성호 의원 대표발의, '09.2.10)이 상임위에 계류 중

□ 방송통신콘텐츠 시장 육성

o **(시장구조 개선)** 사업자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T-커머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콘텐츠 오픈마켓을 지속적으로 활성화

- 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제작자간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개선하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

- 방송사업자-외주제작사간 프로그램 공급기준 신고의무화 및 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저해 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근거 마련('10.12월)

o **(제작지원)** 융합형 콘텐츠 등 우수, 창의적 방송콘텐츠 제작지원(231억원)

- 방송사업자의 고품질 콘텐츠, 환경·에너지·다문화 등 공익적 콘텐츠, 수출전략형 글로벌 콘텐츠 등 제작지원 (165억원)

- 창의실용적 콘텐츠, 입체형(3D)콘텐츠, 양방향 다국어 자막서비스 등 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(66억원)

o **(지원센터)** 고양시에 '12년까지 2,000억원 규모의 콘텐츠 제작, 송출시설인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(문화부와 공동, '10년 100억원)

<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>

- 조성규모 : 부지 10,702㎡(3,243평), 연면적 55,952㎡(16,955평), 지상 18층 지하 4층
- 주요시설 : 스튜디오 (535형 1, 320형 1, 160형 4), 중계차 1, 편집실 16
- 이용대상 : 방송채널사용사업자(PP), 독립제작사, 양방향콘텐츠사업자

o **(투자 지원)**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여 3년간 1,000억원 규모의 방송통신 콘텐츠 투자펀드 조성·운용('10년 정부예산 100억원)

- 다큐멘터리와 융합형 콘텐츠 등 차세대 유망 방송통신콘텐츠 분야에 중점 지원

⇒ 방송통신콘텐츠 시장은 '08년 17조원에서 '12년 23.1조원으로 확대 전망

1-3. 디지털전환으로 차세대 방송기반 구축

◆ **[10년 계획] 방송제작·송신시설 디지털화, 아날로그 방송 시범종료, 홍보강화 등으로 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촉진**

□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

o **(디지털방송 확대)** 방송사의 방송제작·송신시설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디지털방송의 수신가능지역을 확대(연중)

- **제작시설 70%, 송출시설 40%** 디지털전환 완료 추진

o **(시범종료)** '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의 문제점과 파급효과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 **충북단양 등 3개 군에서 아날로그방송을 시범종료**

※ 시범지역 : 경북 울진(9.1), 전남 강진(10.6), 충북 단양(11.3)

o **(대국민 홍보)** TV·신문·인터넷 등 대중매체, 홍보차량을 이용한 홍보 강화로 디지털전환 인지율·수신기 보급률을 제고

- 동계 올림픽, 월드컵 등과 연계하여 대국민 **인지도 70%** 달성

o **(취약계층 지원)** 디지털전환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디지털 컨버터(DtoA), 안테나 등의 보급 방안 마련('10.6월)

o **(추진단 구성)** 디지털전환의 **실행력 강화**를 위해 관계부처, 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**디지털전환 추진단 구성**('10.3월)

□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

o **(전송망 고도화)** 농어촌 등 디지털전환 취약지역의 케이블 TV 전송망(8,085㎞)을 고도화(연중)

o **(설비 디지털화 등)** 케이블TV 방송설비의 디지털화를 완료하고, 저가형 상품과 보급형 셋탑박스 개발을 지원(연중)

1-4. 차세대 방송통신기술 선도

◆ [10년 계획] 세계 최초 Full HD급 지상파 3DTV 실험방송 및 4G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차세대 방송통신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마련

□ 차세대방송(3DTV)

o **(3DTV 실험방송)** 차세대방송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**세계 최초로 Full HD급 지상파 3DTV 실험방송 실시('10. 10월)**

※ 2009년 3분기 현재, 세계DTV시장의 1·2위 점유(삼성 22%, LG 13%)

- '10년 케이블/위성 3DTV 실험방송을 병행 실시하고, G20 정상회의 기간 중 3DTV 시연을 통해 우리기술의 우수성 홍보

※ 일본(BS11, '07.12), 영국(BSkyB, '08.3), 미국(Comcast, '09년말)은 케이블/위성방송 중심으로 3DTV 실험방송 추진중

- '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및 '12년 여수 EXPO를 3DTV로 실험중계

< 3DTV 시장전망 >

o 세계 : '10년 640만대(88억달러, 4%) ⇒ '12년 1,800만대(195억달러, 9%)

o 국내 : '10년 40만대(1조 2,000억원, 13%) ⇒ '12년 90만대(1조 7,280억원, 30%)

※ 출처: Insight Media/Displaysearch/가전사 자료기반 추정
(%)는 DTV 시장 중 3DTV 비율(판매대수 기준)

□ 차세대이동통신(4G)

o **(WiBro 망 구축 확대)** WiBro 전국망이 효과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유도

- WiBro 접속률 및 전송속도 등에 대한 품질평가를 추진하여 사업자의 망투자 확대, 지속적 품질개선노력을 유도 (연중)

※ KT는 전국 84개시의 인구기준 커버리지 77.7%를, SKT는 66.9%를 구축할 예정

o **(4G 핵심기술개발)** 4G 시장선점을 위해 WiBro와 LTE 핵심기술을 병행개발('10년 예산 220억원)

※ 국내업체는 WiBro 외에 3G LTE도 세계적 경쟁력 보유

o **(4G 국제표준화)** 2011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인 차세대이동통신 국제표준에 국내 기술 반영을 위해 **ITU 등 국제표준화 기구와 협력**

※ 우리나라는 '09. 10월 ITU에 4G 표준안 제출

1-5. 새로운 녹색융합서비스 활성화

◆ [10년 계획] 방송통신과 서비스산업을 접목하여 녹색 융합서비스 창출 및 녹색성장 주도

□ 국내외 방송통신 동향

o **방송통신융합의 진전** 및 **이종산업과의 제휴**가 **확산**되며 신서비스 창출

해외 동향	국내 동향
▶BT(통신): 이동형 오피스 서비스 제공 ▶Cisco(장비): 실감 영상회의, u-City서비스 개시 ▶Google(검색): 스마트 폰 출시 예정	▶KT: WiBro/IPTV/3G 통합 영상서비스 확산 ▶SKT : 금융 등 8대 서비스 IPE 전략 추진 ▶LGT: 이동형 업무 솔루션 개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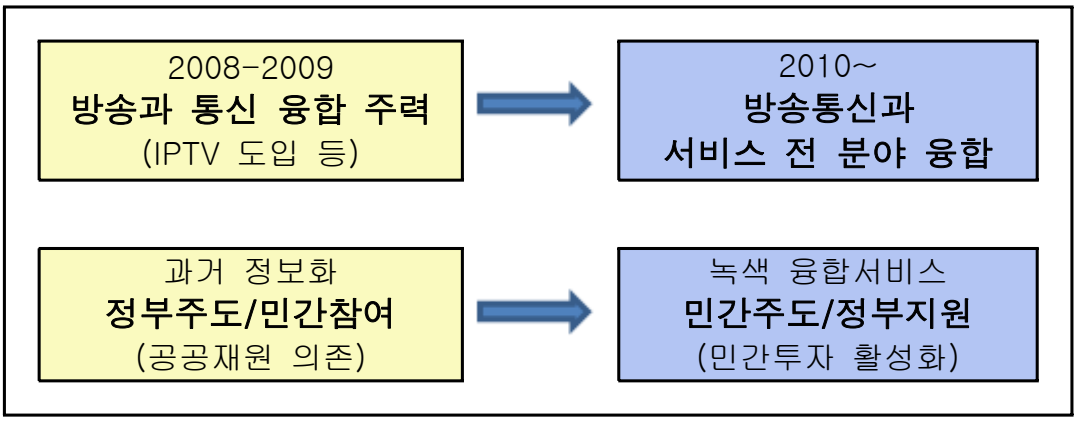
※ IPE : Industry Productivity Enhancement

□ 방송통신 녹색 융합서비스 추진

o **(필요성)**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큼에도 불구, 한국은 GDP 대비 서비스 산업비중이 작고, 생산성도 낮아 개선 필요

※ 한국은 ICT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(맥킨지, '09.11)

o **(추진전략)**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넘어 서비스 분야 전반에 ICT 융합전략을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녹색성장에 기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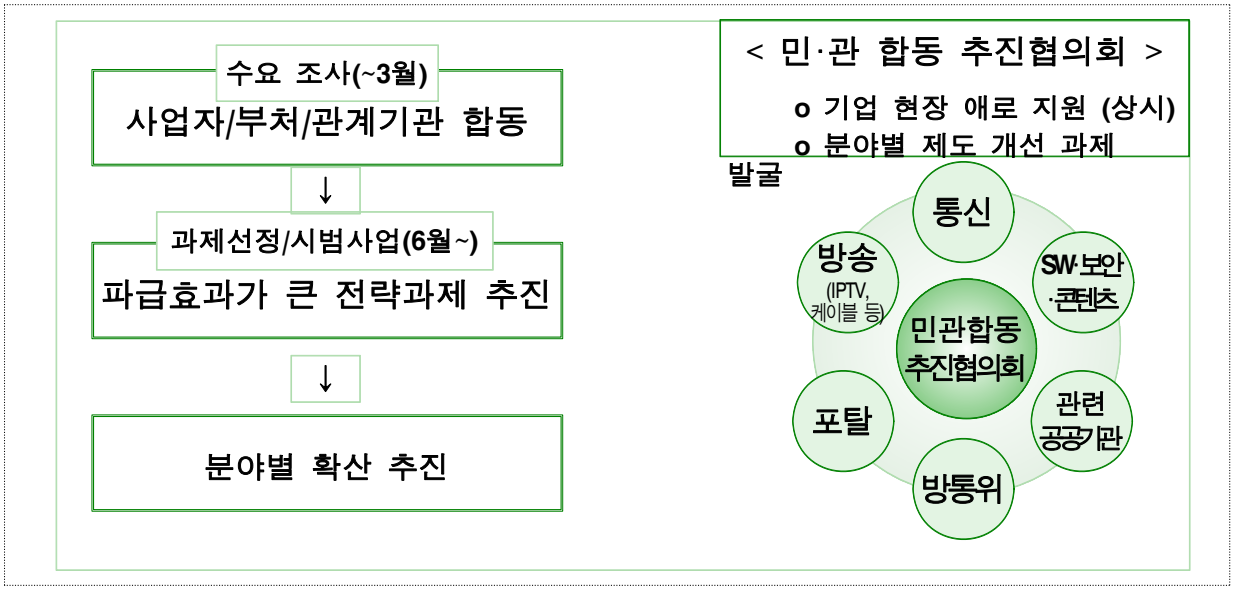
o **(추진방법)** 민간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상품화를 추진하고, 정부는 사업자/부처/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를 거쳐 전략분야 시범사업 추진·확산

□ 추진 계획

o 사업자와 관련기관 **수요조사**(~'10. 3월)를 거쳐 금융, 도시관제 등 전략분야 과제 발굴 및 **시범사업** 추진('10. 6월)

※ 국방 IPTV 시범사업('09년) → 격오지 등에 본격 확산('10년)

o **'민관 합동 추진협의회'**의 구성·운영을 통해 현장 기업애로 지원과 제도·규제개선 과제 발굴 추진 (상시)



2. 미래 네트워크 세상 선도

2-1. '12년 10배 빠른 초광대역 네트워크 구축

◆ **[10년 계획] 기가인터넷 시범서비스, 농어촌 광대역망 및 사물통신 기반 구축**

□ 기가인터넷 구축 추진

o **(시범서비스)** BcN보다 10배 빠른 Giga인터넷의 **'12년 상용화**를 위한 시범망을 구축하여 **1,000가구**를 대상으로 **시범서비스** 제공('10.9월)

< '10년 신규 시범서비스 내용>

구 분	내 용
TV 영상전화	HDTV, HD 카메라를 활용한 고품질 실감형 영상전화
멀티앵글 IPTV	다양한 각도의 카메라 화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IPTV
HD 홈CCTV	HD급의 고화질 홈CCTV 서비스
커뮤니티TV	특정 커뮤니티에 가입된 이용자에 실시간 영상데이터 전송 및 양방향 서비스 제공

※ 3D IPTV, Giga웹존 등 '09년 시범 서비스의 보완, 업그레이드 진행

※ 가정, 병원, 학교, 유치원 등 이용대상별로 특화된 실감형 서비스 모델 발굴

o **(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) 고품질·대용량 콘텐츠 전송**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서비스 시험·검증(31억원)

□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

o **(격오지 구축)** 민간 투자기피 지역인 **50가구 미만 격오지 농어촌 마을**을 대상으로 **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**함으로써 **소외지역 정보격차 해소**

- '10~'12년까지 정부, 지자체, 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광대역망을 구축하고 원격의료 등 농어촌에 특화된 서비스 모델 발굴

※ 농어촌지역 결합서비스(TV, PC, 유선전화, 핸드폰) 활성화를 통해,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 최대 50% 발생

※ IPTV를 활용한 u-Learning, u-의료 서비스를 통해 대도시에서나 가능한 유명 강사의 강의나 전문의의 의료서비스 제공

<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사업>

o 총 사업비 : 2,326억원(정부 683.5억, 지자체 547.5억, 사업자 1,095억)

o 사업기간 : '10년 ~ '12년

o 지원조건 및 사업시행주체 : 출연(한국정보화진흥원)

o 주요 사업내용

- **(가입자망 구축)** 전국 13개 광역시·도의 일부 행정리(약 480개)를 대상으로 광대역 가입자망을 시범 구축

- **(여건조성)**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망 구축 현황 조사,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범서비스 모델 발굴·적용 등 여건조성 과제 추진

□ 사물통신기반 구축

o **(시범사업)** 지자체와 산업체 공동으로 **공공분야 사물통신 인프라**를 시범구축하고 서비스를 연계하여 사물통신 확대 기반 마련(10억원)

- 기후변화대응, 재난·재해방지 등 녹색 IT 분야 우선 적용

o **(응용서비스 모델 발굴) 에너지 절감, 방범방재**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물통신 응용서비스 모델 발굴 및 검증(4억원)

o **(선도시험망 구축 운영) 사물과 기기간 네트워크 상호호환성** 등을 시험·검증하기 위한 선도시험망 구축 운영(3억원)

o (**사물통신 활성화 여건 조성**) 사물통신 핵심기술 개발과 관련기술 표준화 및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 국제 경쟁력 제고(8억원)

2-2. 무선인터넷으로 제2의 인터넷붐 조성

◆ **[10년 계획] 무선인터넷 고도화, 신수요 창출, 산업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인 인터넷산업 환경조성으로 제2의 인터넷 붐 조성**

□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

o **(광대역 무선망 구축) Wibro망**의 전국 확산과 **무선랜(와이파이)** 이용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무선인터넷 이용환경 개선

o **(스마트폰 보급 확대) 무선인터넷 직접 접속**이 가능한 **스마트폰**을 출시 기준으로 **14%에서 24%**로 대폭 확대

□ 무선인터넷 산업 활성화

o **(신규서비스 발굴) 모바일 검색·광고, 모바일 오피스, 위치정보서비스** 등 무선인터넷을 활용한 녹색 융합서비스 모델 발굴

o **(제도 개선) 이용자가** 단말기·서비스 등을 **선택할 수 있도록** 무선인터넷 **이용환경을 개선**하고, 공공부문 콘텐츠 제공기반 조성('10.9월)

※ 예 : 전국 지역 전화번호(DDD) 기반 무선인터넷 접속(02+무선인터넷 → 서울시청)

- 영세한 중소 콘텐츠사업자 등의 시장진입을 위해 **원스탑(One-Stop) 지원 시스템**을 **구축**하는 등 **무선망개방 제도를 개선**

o 이통사는 자사와 계약한 내부 CP가 필요한 대부분 업무를 일괄 대행하는데 비해, **외부 CP들은 서비스에 필요한 콘텐츠 심사, 과금대행 및 요금청구, 콘텐츠 유통 등을 6개 기관에서 각각 처리**

【참고 : 스마트폰 확산】

□ 개 요

o 스마트폰은 무선 환경에서 **PC와 같이 인터넷을 쉽게 이용**할 수 있는 단말기(아이폰, 옴니아폰, 인사이트폰 등)

- 모바일 업무처리, 실시간 교통정보, 전자책(e-Book), 모바일 뱅킹, 맛집 검색 등 무선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

o 지금 **세계는** 무선인터넷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**스마트폰과 무선 콘텐츠 분야의 주도권 장악** 노력중(애플, 구글, 노키아, 이통사 등)

※ 방통위는 스마트폰 확산을 통한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아이폰 서비스 도입을 허용('09.10월)

□ 스마트폰 도입효과

o 스마트폰은 높은 처리능력과 풍부한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**데이터 통신 수요를 촉발**하며, **통신시장 전반의 변화**를 유도

- **(서비스) 음성** 중심에서 다양한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에 기반한 **데이터 통신** 중심으로 전환

- **(콘텐츠)** 이통사 중심의 **폐쇄형** 콘텐츠 유통구조가 직거래장터 에서 콘텐츠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**개방형 구조**로 전환

- **(네트워크) 음성 위주의 저용량** 네트워크에서 **ALL-IP 기반의 광대역 데이터 네트워크**로 진화

□ 스마트폰 보급 확산 정책방향

o **(서비스)** 스마트폰 **전용요금제**, 무선 데이터 **요금 인하** 등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**무선 데이터 이용 부담을 경감**

o **(콘텐츠)** 콘텐츠 **직거래 장터 활성화**, **공정한 콘텐츠 수익 배분**을 통한 콘텐츠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

o **(네트워크)** WiBro 등 **무선 인터넷망에 대한 투자 확대** 유도

□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지원

o **(시범서비스)**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거나 연방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**특화된 시범사업**('10.10월)을 실시하여 성공모델 발굴 지원

- '10년에는 온라인 게임·교육 등에 시범서비스를 통해 **안정성 및 보안성을 검증**

o **(테스트베드)** 민관 매칭펀드 형태(정부예산 20억원, 민간 20억원)로 '클라우드 컴퓨팅 테스트베드'를 구축하여 시장 창출 지원('10.5월)

- 기술 개발을 통한 녹색성장, 창업지원,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

※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창업 초기 IT자원을 임대하는 경우 IT설비를 설치·운영하는 것보다 **연간 40~60% 비용절감 가능**

o **(범정부협의체 운영)**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방통위, 행안부, 지경부 공동으로 활성화 협의체 운영('10.1월)

□ 미래인터넷의 선도적 비전 제시

o **(추진체계)** 법률·경제·사회·기술 분야의 여론주도층 인사로 「미래인터넷추진위원회」를 구성하여 '**한국형 미래인터넷**' 비전 제시('10.2월)

- 미래인터넷을 IT분야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하여 지원·육성하기 위한 **「미래인터넷 중장기 기본계획」** 수립('10.8월)

o **(추진전략)** 美·日·EU의 추진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중기-장기 전략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

- 정부 주도로 장기과제(미래인터넷 원천기술 확보)와 중기과제(현행 프로젝트 지속 지원) 병행

o (**시범사업 및 테스트베드 구축**) 센서네트워크, 4G, 입체영상 등 미래인터넷 기술을 전시·체험할 수 있는 공간(미래인터넷 존) 설치('10.5월)

- 기존 **한-미-일**, **한-아시아-유럽**을 연결하는 **국제연구망**을 확대·구축하여 국가간 **미래인터넷 공동연구**를 위한 **테스트베드**로 활용

2-3. 안전한 사이버 세상 구현

◆ **[10년 계획] DDoS 대응 및 예방시스템 강화, 융합서비스 보안기술 개발, 아이핀 보급 확대 및 개인정보 노출점검 강화 등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**

□ **DDoS 등 사이버공격 대응역량 강화**

o **(장비·인력 보강) 인터넷침해대응센터**(KISC)의 노후된 대응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악성코드 분석 등의 **전문인력**을 대폭 보강(120억원)

※ 민간부문은 인터넷사용자 3,500만명, PC 3천만대, 서버 570만대, IP 7200만개 등으로 전체 사이버영역의 97% 이상을 차지 (반면 공공부문 : PC 130만대, 서버 수만대),

o **악성코드 탐지** 점검대상 웹사이트를 **대폭 확대**(15만개 → 100만개) 하고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**「DDoS 긴급대피소」**를 구축(80억원)

□ **신규서비스 대응체계 구축**

o **(신규 융합서비스 대응) 인터넷전화(VoIP), 인터넷TV(IPTV), 무선 인터넷** 등에 대한 침해사고 대응체계 마련('10.10월)

o **(차세대 인터넷 기반서비스 대응)** 클라우드 서비스 및 미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사전 보안체계 강구('10.12월)

□ **이용자 보호 강화**

o **(감염확인 및 치료지원)** 이용자PC에 대한 신속한 감염 확인과 치료를 위해 **「감염PC 알림서비스」**와 **전용백신 보급체계** 마련(40억원)

o **(예보지표 개발 등)** 이용자들이 TV, 포털 등을 통해 인터넷 위협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**정보보호 예보지표 개발**(14.9억원)

o **(아이핀 보급)** 중·대형 웹사이트의 **아이핀 도입**을 **확대**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수집한 **기존 주민등록번호**를 **아이핀으로 전환** 추진

- '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'의 제공 관련 **사업자 이행 점검, 아이핀 전환 캠페인** 및 이용자 홍보 등 실시('10.4월~)

o **(개인정보 암호화)** 주민번호, 금융정보 등 **개인정보의 암호화 대상 확대** 및 **개인정보 전송구간 암호화** 프로그램(보안서버)의 이용 확산 추진

※ 인터넷 사업자 등은 주민번호·신용카드번호·계좌번호의 암호화가 의무 적용됨 (정보통신망법 시행령, '10.1.29 시행)

o **(개인정보 유출 대응) 개인정보 유·노출 대응시스템**을 통해 웹사이트 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신속히 탐지하여 삭제(28억원)

3. 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십 확보

3-1. 방송통신 KOREA 브랜드 강화

◆ **[10년 계획]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및 방송통신 ODA 확대를 통한 방송통신 KOREA 브랜드 강화**

□ **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지원**

o **(시연서비스 제공)** 각국 대표단 및 기자단 등이 우리의 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**시연서비스를 제공**하여 방송통신 강국 이미지 강화

- 고품질·실감형 3DTV 서비스, WiBro 기반 모바일 IPTV 서비스 및 교통정보 등의 IPTV 양방향 서비스에 대한 체험 기회 제공

o **(전시회 개최)** 초광대역융합망(uBcN) 관련 **전시회를 G20 정상회의와 연계 개최**하여 미래 방송통신 선도국 이미지 제고

- uBcN, Green IT, IPTV, 미래 네트워크 등 첨단 방송통신 관련 기술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전시회 개최

o **(컨퍼런스 개최)** 세계 각국의 정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송통신 분야 **국제컨퍼런스를 개최**하여 국제논의 주도 및 해외 진출에 활용

□ **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및 ODA 확대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**

o **(ITU 전권회의 유치)** UN 산하 국제기구인 **ITU 전권회의**('14년 개최)**를 한국에 유치하고, ITU 이사국 6선 진출** 추진('10.10월)

-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회로 활용

※ ITU 전권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(ITU)의 최고의사결정회의로서 매 4년마다 개최되며, 아시아권에서는 1865년 ITU 설립 이후 '94년 일본만이 유일한 개최국임

o **(개도국 방송통신 지원)** 개도국 초청연수, 정책자문 및 방송장비 지원 사업 등 ODA 사업을 경제규모에 걸맞게 지속적으로 확대

※ 초청연수 : '09년 324명⇒10년 400명, 방송장비 지원 : '09년 1개국(2억원)⇒10년 2개국(5억원)

- KOICA, KOTRA, 수출입은행 등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**대외경제협력기금**(EDCF) 등의 통신 분야 지원규모 확대 추진('09년 EDCF : 505억원)

3-2. 해외로 뻗어가는 방송통신

◆ [10년 계획] 5대 전략품목의 대륙별 거점국가 진출 및 전략국가 해외 홍보방송을 확대하여 방송통신 글로벌 진출 강화

□ 방송통신 글로벌 진출 확대

o WiBro, DMB, IPTV, 방송콘텐츠, 브로드밴드('10년도에 추가) 등 방송통신 **5대 전략품목의 25개 거점국가 진출**에 주력

- 아시아(인도), 남미(브라질), 아프리카(남아공), 유럽(터키), 대양주(호주) 등 대륙별 핵심 전략국가 진출에 지원역량을 집중

※ '09년말 전략품목 수출추정치(국가수, 금액) : WiBro(18개, 6,916억원), DMB(3개, 3,110억원), IPTV(10개, 806억원), 방송콘텐츠(56개, 2,028억원)

o 특히, **남아공 월드컵**을 통해 WiBro, DMB 홍보를 중점 추진하여, 방송통신 인프라 잠재시장인 **아프리카 대륙 진출의 교두보**로 활용

-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WiBro, DMB, 방송콘텐츠 등에 대한 **시연·홍보와** 서비스 도입을 위한 **타당성 조사 등 컨설팅 지원**을 확대

※ 아프리카 진출현황 : WiBro('08년,르완다), DMB('08년,가나), 방송콘텐츠(남아공 등 6개국)

□ 해외 홍보방송 확대로 한국 이미지 개선

o **(해외진출)** 미국, 일본, 중국, 인도, 브라질 등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나라를 중심으로 해외 홍보방송의 진출을 확대(연중)

o **(방송교류)** 중국, 베트남 등의 국가와 방송프로그램 교환 방송을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 증진 및 문화 교류에 기여(연중)

o **(해외한국어방송)** 해외의 한국어방송사에게 국내 콘텐츠 방영권, 제작비, 연수교육 등을 지원하여 재외동포의 우리문화 접근성 제고(22억원)

o **(월드컵 중계지원)** 남북한이 동반 진출한 남아공 월드컵을 북한 주민들도 시청할 수 있도록 **위성중계를 지원**하는 방안 추진

3-3. 대한민국 방송통신 품격 구현

◆ **[10년 계획] 공영방송 재원안정화, 언어 순화 등으로 방송의 공영성·공익성을 강화하고, 불법스팸 및 유해정보 방지 등을 통한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문화 조성**

【방송】

□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

o **(재정기반 선진화)** 공영방송이 시청률 경쟁에서 벗어나 공익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재원 안정화 방안 마련

o **(채널접근)** EBS 플러스1(수능), EBS 플러스2(초·중학), EBS English 등 EBS 채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 기회를 확대

□ 미디어다양성 보장 제도화

o **(미디어다양성 보장)** 관련 학계·산업계 전문가들로 개정 방송법(제35조의4)에서 규정한 **미디어다양성위원회**를 구성·운영

o **(시청점유율 제한)** 일부 매체에 의한 지나친 여론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**시청점유율 30% 초과를 금지**하는 사후규제를 본격 시행('10.8월~)

□ 공익광고 활용도 제고

o **(사회현안 대응력 제고)** 주제선정 시기를 확대(연 1회→ 2회)하고, 현안발생시 수시과제로 선정하여 긴급 사회현안 대응력을 제고(연중)

※ (예시) DDos, 신종플루, 저출산 등

□ 방송품격 제고

o **(막말 방송·저품격 드라마 제재 강화)** 방송의 품격을 저해하고 국민 정서를 훼손하고 있는 막말 방송, 저품격 드라마에 대하여 제재 수위를 상향하고 과징금 등 경제제재를 강화하여 질적 제고를 유도(연중)

- 방송사 심의·제작 책임자 회의를 확대(연 2회→4회)하여 자체심의 강화 유도

- '방송언어 개선방안'('09.11월, 방통심의위 발간)을 활용하여 PD, 작가 등 제작진에 대한 교육 강화

-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개발·보급('10년말), PD재교육사업(한국PD교육원)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을 유도

o **(미디어 리터러시 강화)** 일반 국민들의 미디어 제작능력 등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재 개발, 강사 양성 및 교육 실시(연중)

-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토록 지상파, SO, 위성PP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청자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(25억원)

o **(공익적 방송프로그램 지원)** EBS 교육프로그램(201억원), 국악 FM 라디오(17억원) 등 공익적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확대

【인터넷】

□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

o **(시스템 구축)** 유해정보 유통 방지 시스템을 구축·운영('10.5월)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우회 접속기술 출현에 따른 대응기술 개발 추진

※ 인포데믹스(정보전염병)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

o **(제도개선)** 유해정보의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본인확인제, 권리침해 정보 대응제도,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

※ 사업자 대상 '청소년보호 가이드라인' 배포 시행('10.3월)

□ 불법스팸 대응 강화

o **(모니터링 시스템)** 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스팸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('10~'12)

o **(포트전환 및 수사 강화)** 스팸 전송에 악용되는 이메일발송 포트 전환(25번→587번) 및 불법스팸 유포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('10.12월)

□ 고품격 인터넷문화 교육 확대 및 캠페인 실시

o **(인터넷 문화 교육)** 인터넷윤리교육을 인터넷 중독 해소, 저작권 보호, 미디어 예절 등 **인터넷 문화 전반으로 확대 실시**(6.8억원)

o **(홍보·캠페인)** TV, 라디오 공익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및 인터넷 윤리관련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·지원(7.8억원)

Ⅳ. 방송통신분야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절감

◆ **방송통신산업은 향후 3년간 연평균 7.4% 성장하여 방송통신 서비스·광고·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고품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**

◆ **탄소 인벤토리 구축 등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고, 사업자 참여 확대**

□ 방송통신산업(방송통신서비스, 통신기기, 방송기기 등) 일자리 전망

o 방송통신산업 생산은 '09~'12년간 연평균 7.4% 성장하여 '12년 약 170조7천억원에 달할 전망 ('09~'12년간 33조1천억원 증가)

- 부문별로는 '12년 방송통신서비스 66.9조원, 통신기기 89조원, 방송기기 14조8천억원의 생산 예상

o 이러한 방송통신산업의 성장으로 방송통신 서비스·광고·콘텐츠 등 방송통신분야 전산업과 방송통신과 타 산업의 융합시장 등에서 **고품질 일자리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**

□ 에너지절약 추진방안

o **(방통위 및 소속기관)**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지침 이행강화 등 방송통신업계의 에너지절감을 선도

- 에너지절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, 탄소인벤토리 구축 등을 통하여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추진

- 냉난방 가동율 축소, 단열필름 공사 등 다양한 절약방안 발굴·시행

o **(방송통신업계)** 에너지절약 목표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각사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에너지절감 방안을 추진

- 저전력 고효율 설비 도입, 전기먹는 하마 IDC 그린화,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지국 구축 등 그린 네트워크로의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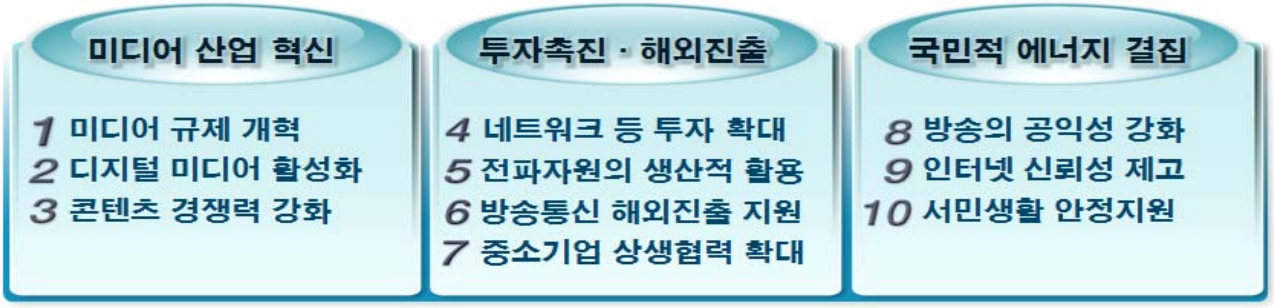
- 모바일/이메일 전자청구서 확산, 방송제작 가상스튜디오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강화

Ⅴ. 2009 업무보고 추진실적 및 평가

□ '09년 업무보고 개요

o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, 방송통신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「방송통신 10대 추진과제」를 선정, 추진

< '09년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추진과제 >



□ 추진실적 평가

o **방송법 개정** 등으로 미디어산업 혁신의 기반을 구축하였고, **이동통신요금 인하**로 국민의 가계부담을 경감하는 등 **'방송통신 강국과 경제위기 극복'**을 위한 역할 수행

- 다만, 법제도 개선,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, WiBro 등 신규투자 증대, 성숙한 방송통신 이용문화 조성 등에는 다소 미흡

구분	미디어산업 혁신	투자촉진·해외진출	국민적 에너지 결집
잘한 점	o 방송시장 규제 완화 (방송법 · 시행령 개정) o IPTV서비스 정착 등 신규서비스 활성화 o 시범지역 선정 등 디지털전환 가속화	o Giga인터넷 등 차세대망 구축 추진 o 신규 주파수 분배 및 전파자원총조사 추진 o 대기업-중소기업간 협력 간담회 연중 개최	o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통한 가계부담 경감 o IPTV 공부방 제공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 o 공익방송 지원강화 및 인터넷교육 확대
미흡 한점	o 콘텐츠 공정거래 확립 미흡(S0-PP,이통사-CP 간 불균형)	o WiBro 등 통신서비스 투자 미흡	o 비속어, 악성댓글 등 성숙한 방송통신 이용문화 정착 미흡